

'n번방' 포위망 좁히고 수사망 넓혀

유료회원 10여명 첫 입건...암호화폐 거래소 등 20곳 압수수색

“‘갓갓’에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시간 걸리지만 반드시 잡아”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명의 신원을 찾아낸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료회원이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으로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암호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5곳을 수사해서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 수사를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특정한 10여명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나 유명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곳에는 지난달 압수수색한 5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13일에는 암호화폐거래소 빙썸·업비트·코인원, 19일에는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고, 구매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게는 수사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암호화폐 지급주소와 유료회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추가로 암호화폐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박사방에서 활동한 유료회원들의 신원도 추가로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 '부파' '사파귀'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일당은 20만원, 70만원, 150만원 등 등급별 유료회원 입장

료를 암호화폐 계좌를 통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불법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내역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만든 '갓갓'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망을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태다.

민감부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갓갓’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조씨 일당과 관련해 조직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그들간 역할, 관계, 단순가담자까지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조직성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과 활동, 위계질서, 지휘통솔체계 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범죄조직단은 소위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보이시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온라인 범죄도(범죄조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있고 적용을 온라인 상으로도 많이 해나가는 추세”라며 “범행에서 인정된 요건도 살펴봐서 세심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 공범으로 검거된 텔레그램 닉네임 '부파' '이기야' 등은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할 수 신상고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 잠시 헤어져요” 6일 서울 성동구 신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인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산근무를 하고 있다.

올해 만우절 장난전화 입건 '0'...민감부 “국민 저력”

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경찰이 이에 대해 입건한 사례는 '0' 건으로 나타났다.

민감부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해(만우절 가짜뉴스와 관련해) 특별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1일)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해야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마다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이 발생했다. 장난전화 등은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고백했다가 '만우절 농담'이라고 밝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김재중씨(34)도 수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따라서 김씨의 행동 또한 관련 수사가 이뤄질만한 사안은 아니며, 범위가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는 만우절 코로나19 감염 허위글 게시물에 대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며 경각심을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예년과 달리) 장난전화 등이 없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저력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단신 ●

차량 절도 10대 발열에 기침...경찰서 폐쇄 후 해제

차량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10대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경찰서가 일부 폐쇄됐다가 해제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 3대를 훔친 혐의로 A씨(18)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구대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된 이들 중 A씨가 체온이 38도가 넘고 기침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선별진료소가 있는 민간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대구 또는 외국에 다녀오지 않은 등의 이유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폐 부분을 컴퓨터 단층촬영(CT)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A씨가 거쳐 간 지구대와 경찰서 형사과 등 시설 일부를 폐쇄하고, 접촉한 경찰관들을 격리 조치했다가 8시 30분쯤 모두 해제했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자친구 전 남편 흥기로 찌른 현역 부사관 체포

휴가를 나온 육군 간부가 연인의 전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흥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육군수도 통합병원 소속의 A상사(30대 후반)가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주택가에서 B씨(30대 후반)의 가슴과 허벅지를 흥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말다툼 도중 미리 준비한 흥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구서 70대 노모·아내·아들 일가족 3명 숨져

대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3분쯤 동구의 한 아파트에 A씨(44) 등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중학생 아들(12)과 어머니(72)는 숨져 있었고 아내(45)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한 지인은 A씨로부터 신변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옷가게 특정종교래요” 허위유포

“강릉지역 70여개 업체가 특정종교와 관련 있다”며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한 30대 여성 A씨 등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3월6일 SNS에 ‘강릉의 70개 업체가 특정종교 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이 허위사실은 무분별하게 확산됐고 피해업체는 대부분 식당과 옷가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은 일당이 아니며 각 개인으로 확인됐다. 유포자들은 경찰조사에서 “퐁으로 들은 정보다. 코로나19를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며 특히 악의적, 조직적 유포사범은 구속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